중생의 生은 '다겁다생'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⑤ 바사닉왕과의 대화, 윤회

〈원문〉 그때 바사닉왕이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옛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가전연과 비라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열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을 만났으나 그들의 말에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경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대중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대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몸이 여기 있으니 묻겠습니다. 왕의 육신이 금강석처럼 항상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변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존이시여, 이 몸은 마침내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데 어떻게 죽을 줄을 압니까?"

"덧없이 변하는 이 몸이 점점 늙어감으로 이 늙음이 쉬지 않아 반드시 죽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외이다. 그러나 왕의 몸이 죽을 때에 왕의 몸에 죽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왕의 나이 몇 살 적에 갠지스강물을 처음 보았습니까?"

"제가 세 살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바천(耆婆天) 사당(祠堂)에 갈 때 처음 보았습니다."

"세 살 때 보던 강물, 그 뒤 열 살, 스무 살, 그리고 지금 예순두 살에 보는 강물은 어떠합니까?"

"세 살 때와 같아 지금 예순두 살이 되어도 강물을 보는 것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왕의 몸이 늙어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강물을 보는 것도 늙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가리(末伽梨) 등이 말하는 죽은 후에 온전히 없어져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이 죽은 후에도 이 생(生)을 버리고 다른 생(生)에 태어나는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강해〉 2권에 나오는 부처님과 바사닉왕의 대화 장면이다. 바사닉왕은 부처님 당시의 코살라국의 왕이었다. 코살라국을 사위국이라고도 한다. 왕의 범어 이름은 프라세나짙(Prasenajit)이다. 왕의 아들 기타태자는 수달장자와 함께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과 묘한 인연이 있었다 한다. 부처님과 나이와 생일이 같았으며 부처님이 성도하시던 해에 이 왕은 왕위에 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또 코삼비국의 우전왕과 마찬가지로 바사닉왕도 부처님이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러 도솔천에 올라가 지상에 없을 적에 최초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전왕은 전단나무로 불상을 만들고 바사닉왕은 금으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처럼 부처님께 귀의한 독실한 왕으로 초기 경전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능엄경〉에도 등장하여 대승법문을 듣고 있다.

이 장면의 대화 내용은 외도들의 단멸론을 부정하며 사람 몸이 죽어도 이 생을 버리고 떠나 다른 생을 받아 태어나 생이 이어진다는 윤회설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생(生)은 다겁다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단생론(單生論)이나 재생론(再生論)이 아닌 다생론(多生論)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인생의 의미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종교화되지 못한 보통의 사고에서는 단생론에 머물기가 쉽다. 금생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생과 내생을 현실 밖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생각에 담아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신(神) 본위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재생(再生)을 말한다. 그러나 금생이 있기 이전의 전생(前生)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설은 전생, 금생, 내생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25원통 한번 마치면 '一往來'…생멸수행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⑤ 자비관

25원통 수행을 한번 마치게 되면 "일왕래(一往來)했다"고 말한다. 과위로는 아나함과이다. 이 과정까지의 자비관이 생멸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이다. 일왕래를 하다보면 의식 · 감정 · 의지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다. 본제관에서 벗어나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재잘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심식의의 일에는 전혀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왕래(二往來), 삼왕래(三往來)를 반복하면서 본제관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의식 · 감정 · 의지가 완전하게 동떨어진다. 아예 인식되지 않는다. 본제관의 25원통 수행이 반복되면서 생멸식이 분리되면 진여식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때의 진여식을 '해탈지견'이라 한다. 일왕래 이후에 25원통을 임의롭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열한 번째 자비관이행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진로로써 자비관을 행한다. 첫 번째 진로는 벽지불의 길이다. 두 번째 진로는 보살도의 길이다. 벽지불이 되는 것은 멸진정에 드는 것이다. 멸진정(滅盡定)이란 본제의 요소 중 간극에 머물러서 적멸상을 취하는 것이다. 보살이 되는 것은 환희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환희지(歡喜地)란 간극 무념 무심 밝은성품이 서로를 비추는 상태에서 밝은성품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벽지불과 초지보살은 모두 11번째 자비관을 행하는 존재들이다. 이 과정을 멸수상정해탈이라 한다. 팔해탈 중 비상비비상처해탈은 생멸수행과 진여수행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는 초선정에서 8선정까지 비상비비상처해탈의 단계가 있고, 진여수행에서는 10지 수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가 있다.

식무변처정에서는 의식과 의지정보가 내재된 영의 몸을 제도한다. 8식의 업식을 제도하고 중추신경 전체를 본성으로 세수(洗修)를 한다. 무소유처정에서는 의식 · 감정 · 의지를 자기로 삼지 않는다. 의식 · 감정 · 의지로 접해지는 모든 경계를 간극과 밝은성품으로 비춰본다. 비상비비상처정에서는 몸을 이루고 있는 열두 개의 기점을 간극의 적멸상을 통해 제도한다. 앞 기둥 세 기점, 중간 기둥 여섯 기점, 뒤 기둥 세 기점에 머물면서 간극의 적멸상을 기점 자리에서 인식한다. 중심 기점에 머물면서 적멸상을 인식하고, 하단전에 머물면서 적멸상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심, 백회, 중황, 중극, 황중, 황정, 회음, 옥침, 영대, 명문을 주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육체의 몸과 혼의 몸, 영의 몸이 제도되고 생명활동을 운용하는 여섯 가지 생명 에너지가 제도된다. 밝은성품과 선천기, 후천기, 쿤달리니, 이다핑갈라, 슈슘나가 여섯 종류의 에너지이다. 이중 밝은성품은 영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에너지이고, 선천기는 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에너지이다. 나머지 후천기, 쿤달리니, 이다핑갈라, 슈슘나 에너지는 육체 기반의 에너지이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상비비상처해탈은 생을 통해 갖추어진 육체를 유(有)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무생(無生)을 이루고 유(有)의 몸을 갖추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유의 몸은 수명이 없다. 유의 몸은 공간 상태에 지배받지 않는다. 유의 몸은 물질을 양분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열두 개의 기점이 적멸상으로 제도되면 이때부터 세포 제도를 행한다. 사륜삼매(四輪三昧)로 세포제도를 시작한다. 사륜삼매란 풍륜삼매(風輪三昧), 수륜삼매(水輪三昧), 화륜삼매(火輪三昧), 지륜삼매(地輪三昧)를 말한다. 세포를 이루고 있는 사대의 물질 형질을 관찰하기 위한 수행법이다. 무정의 네 종류 소마티드를 획득하고 선천혼의 형질로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면 유(有)의 몸을 갖춘 것이다. 이때부터는 진여수행의 절차를 통해 비상비비상처해탈을 진행해 나간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⑤ 지혜

마음 안다는 건 '구분' 아닌 '밝힘'

자신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론과 개념을 여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라 말함은 각자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다르기 때문이니, 실제로는 전체가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개체의 마음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도 대상의 또 다른 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이라는 것이 처음의 분석과 이론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개념이라는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은 분별심으로 생겨나고, 분별심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인데, 그것을 개념화한다고 사실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체가 추측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 하나들을 모았다고 해서 전체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르더라도 전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만 한정성이 사라진다. 이때 전체라는 것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가늠한다면 그것은 부분이지 전체가 되지 못한다. 이 전체라는 의미를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마음을 아는 데는 항상 부족함이 생기게 된다. 그 부족함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만, 그 부족하다는 생각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전체의 마음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론과 개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린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뿌리내려 집착하는 자신만의 이론과 개념을 -언제부터 그렇게 확고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관심없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성으로 벗어나는 일을 더 어렵게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집은 마음을 더 병들게 하며 마음을 위축시켜 버린다. 이러한 일이 장기화되면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소통은 불가능하게 된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개념에 대한 번복이다. 유(有)는 무(無)로 번복하고, 무는 유로 번복하는 것을 계속하여 더 이상 유무로는 번복할 것이 사라지면, 마음에 편안하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별이 사라질 때, 내가 집착하여 만들어 놓은 망심과 망상이 자연스럽게 붙어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실적으로는 편안하다고도 할 것도 없다. 그 망심과 망상은 실제의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을 아는 것은 마음 안의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있지도 않은 뱀을 사라지게 한 것도 없고, 그것을 또 내가 밝혀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고 보면 마음이 처음부터 무엇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새끼줄로 배워야 할 것을 뱀으로 배워 사용한 것이니 이제 그것에 대한 진짜 이름을 들었다면 항상 진짜 이름으로 진실하게 사용하여야 오랫동안 업습(業習)으로 잘못 사용한 것을 고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도 고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무시 이래로 사용한 업습을 그것도 집착으로 딱 붙어있는 습기를 제거하려면 완전한 일심의 자각이 아니면 지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노력이라는 것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지만, 일심의 자각은 무엇을 생기게 해서도 안 되고, 없어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달마 스님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라 하시고, 마조 스님은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시고, 뒤이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셨다. 우리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알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습기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마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하는 일 없는, 그 마음을 바로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가 만약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조(佛祖)는 불조로서의 상징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습기가 일어날 때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그 습기는 습기가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하는 지혜인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